

발레, 삶을 묻다

Ballet, Asks Life

김주희(Kim, Joohee)*

김태희(2025). 삶의 질문에 몸짓으로 답하다. 레베랑스.

대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지영씨는 학생들에게 ‘무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한 학생이 ‘춤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웠다’는 답을 듣고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져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지영씨가 느낀 그 무언가에 공감한다. 춤추는 자체가 그저 재미있었고, 춤을 좋아하는 마음과 멋진 무대를 동경하며 선생님에게 배우는 작은 동작 하나에 여러 감정을 느끼며 춤을 추어왔다. 그 과정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작품을 함께 완성해 가는 협업 과정, 그 누군가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춤을 통해 성장하였고 지금도 춤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과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김태희 작가가 쓴 『삶의 질문에 몸짓으로 답하다』 또한 그렇다. 발레를 전공한 그녀에게 발레는 삶의 질문이 되었고 춤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아내었다. 도서의 구성은 번호 구성없이 주제에 맞게 크게 7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각 챕터의 제목은 ‘죽음, 끝이 아닌 탄생’, ‘무너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사랑이란’, ‘무대라는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 몸’, ‘극장이라는 환상, 현실이라는 환멸’, ‘움직임은 어떻게 아름다운가’, ‘예술은 또한 정치적이다’, ‘우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같이 감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본문은 발레의 연대기적 기술에서 벗어나 ‘죽음’, ‘사랑’, ‘자유’, ‘몸’, ‘인간’, ‘극장’, ‘환상’, ‘움직임’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대표되는 발레 작품과 안무가, 캐릭터, 무용수, 발레 동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이 흥미로워 저자가 이끄는 대로 읽다 보면 어느샌가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레베랑스’를 마주하게 된다.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발레 클래스는 ‘레베랑스(révérence)’라 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마친다. 상대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스스로 처음과 끝을 되새기는 의미가 깃든 발레의 고유한 인사 형식이다. 지금 이 문장까지 공들여 읽어 주신 독자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sunjang33@gmail.com

계 레베랑스 하는 마음으로 책을 마친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근육이 움찔거리며 양팔을 넓고 크게 벌려 온 마음으로 상상의 레베랑스로 화답하였다. 끊임없이 발레를 글로 옮겨 온 작가라 그런지 중간중간 문장에서 만나는 발레 동작은 생명을 불어넣은듯 섬세한 움직임으로 살아난다.

취미 발레의 인기로 인해 최근 출간되는 서적들이 발레 기초 개론서나 간추린 발레사,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클래식 레파토리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클래식 발레부터 컨템포러리 발레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작가가 얼마나 정성껏 이 책을 만들어 나갔는지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을 배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사진과 함께 곁들여진 장면 설명은 작가가 포착한 성찰의 지점을 이해할 수 있어 선별한 사진만으로도 작가가 꾸린 서사가 전해 진다. 현대 발레를 성공적으로 이끈 안무가들이나 그들의 대표작들을 거침없이 소환하고 있어, 최근의 발레 경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독자가 읽는다면 흥미롭게 빠져들 것 같다. 물론 이 책의 뒷부분에는 본문에서 다룬 작품과 안무, 음악, 초연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 열정 있는 독자라면 이 작품들을 하나씩 찾아보며 읽는 것도 재미있는 독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책이 재출간 된다면, 무용 전공자들도 모든 발레 작품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더해져도 좋을 것 같다.

사실 우리는 모두 지영씨이고 싶다. 일상 속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 버린 마음 근육을 깨우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행운일지 모른다. 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춤을 통해 인생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다면 김태희 작가의 시작을 알리는 레베랑스에 맞춰 『삶의 질문에 몸짓으로 답하다』를 읽어 보기를 권한다.